

# '가성비·스몰 럭셔리' 색다른 여행 예능 온다 tvN '잔내투어' 25일 첫 방

TV 여행 예능 프로그램 홍수 속에서 또 하나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안방을 찾는다. 오는 25일 오후 10시20분 처음 전파를 타는 tvN '잔내투어'다. 첫 방송에 앞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타포드 호텔에서 연 제1차 발표회를 통해 베일을 벗은 이 프로그램은 기존 여행 예능 프로그램과 다르다. 이름 그대로 '잔내'라는 여행을 표방한다.



tvN '잔내투어'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이 참석하지 못한 박명수의 등신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희현, 박나래, 정준영, 김생민.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는 여행은 아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최대한 즐기는 여행이 어떤 것인지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외 자유여행을 하게 된다. 이틀은 여행 기간 중 하루씩을 맡아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해당 일에 다른 팀원들의 부어 가이드가 돼 여행을 이끈다. 모든 여행이 끝난 뒤 투표를 통해 가장 가성비 좋은 일정을 설계한 출연자가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 우승자는 남은 경비로 본인이 평소 꿈꿔온 로망 물론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를 만끽하게 된다. 우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는 쓸쓸히 귀국한다. 손준우 PD는 "여행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이루는 합리적인 소비인 가성비와 가치 소비인 스몰 럭셔리로 차별화하려 했다면서 "아길 때는 아끼더라도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마다하지 않는 트렌드

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요즘 핫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봉장요정' 김생민이 출연한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최초로 해외 자유여행을 떠난다. 손 PD는 "김생민은 기획 단계부터 취지에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해 어렵게 섭외했다"면서 "김생민은 일본 오사카에서 첫 설계자로 나선다. 폭풍우가 쏟아져도 계획한 무료 투어를 진행하고, 최저가는 귀신같이 잡는 김생민 덕분에 "그레이트한 여행이 가능했다. 김생민은 최저비용으로 최고민족을 이끌어 낸 여행 설계자였다고 김생민을 치켜세웠다. 그는 "단, 예능 신생아인 만큼 예능감은 '스튜디오'했다면서도 "하지

만 발전해가는 모습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말해 김생민에게 애정을 나타냈다. 1992년 KBS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그간 정보·교양 프로그램이 주로 출연해온 김생민은 "다른 출연자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생민과 함께 주목할 만한 출연자가 박나래다. "문순" 또는 미아니스 손이라 불릴 정도로 김생민과 대비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손 PD 역시 그 점에 주목해 캐스팅했다. "박나래씨는 김생민씨와 다른 이미지가 있어 서로 다른 투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내투어'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방송한다. 총 7~8회 방송할 예정이다. /뉴스

## 맨유, 바젤에 덜미 잡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좌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스위스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하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확정에 실패했다. 맨유는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바젤에 0-1로 졌다. 4연승 뒤 첫 패다. 맨유는 승점 12로 여전히 선두를 고수했으나 첫 패배로 꺾임함을 남겼다. 확률이 높지 않지만 3위 CSKA 모스크바(승점 9)와의 최종전에서 큰 점수차로 패하면 16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은 승점 9(3승2패)로 2위로 올라섰다. 부상에서 돌아온 폴 포그베와 그동안 포그베의 공백을 잘 메운 마루안 펠라니, 안드레 에레라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여러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42분 펠라니의 슈팅 골대를 때렸고, 2분 뒤에는 마르코스 로호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앤서니 마셜의 단독 드리블에 이은 슈팅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바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들어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조세 무리뉴 감독, 맨유

0의 균형을 후반 44분 바젤로부터 깨졌다. 왼쪽 측면에서의 땅볼 크로스를 마이클 램이 달려들며 밀어넣었다. 일격을 당한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등으로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D조의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는 득점없이 비겼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11(3승2무)로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과의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조 2위까지 주어

는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유벤투스는 승점 8(2승2무1패)에 그치면서 스포르팅 리스본과 막판까지 2위를 두고 혈투를 벌이게 됐다. B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나란히 1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의 2골 도움 활약 속에 셀틱(스코틀랜드)을 7-1로 대파했다. 5전 전승이자 24골1실점의 완벽한 흐름이다. /뉴스

## 미국 진출 선언 고진영, LPGA 투어 관심집중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년 연속 신인상은 한국 선수의 차지가 될 것인가. LPGA 투어 진출을 선언한 고진영(22·하이트진로)이 벌써부터 내년 시즌 신인상 1순위로 꼽혔다. 미국 골프채널은 23일 "히다아 외에 새로운 고가 LPGA로 온다"며 고진영의 투어 진출 소식을 보도했다. 골프채널은 고진영은 리디아 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2년 전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준우승하면서 처음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고진영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날 박인비(20)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우승을 내줬다. 고진영은 "LPGA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당시 골프채널과 인터뷰할 때까지는 해도 미국 진출 여부를 고심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라서 '먼 곳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오는 외로움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채널은 고진영이 2018시즌 LPGA 신인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한국 선수들은 2015년 김세영(24), 2016년 전인자(23), 올해 박성현(24)까지 3년 연속 신인상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LPGA 진출을 선언하며 "LPGA 투어 진출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것으로 세계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며 "쉽지 않지만 내년에는 LPGA 회원으로 첫 승과 신인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 방탄소년단, 日 한류도 이끈다... 싱글 선주문 30만장 돌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재점화는 한류에 불길을 더한다. 23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여덟 번째 일본 싱글 '마이크 드롭/DNA/크리스탈 스노우'의 선주문이 30만 장을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레이블인 유니버설 뮤직은 "지난 10월18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싱글이 이달 19일까지 30만 장이 넘는 선주문량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발매일까지 2주나 남은 시점에서 예약된 물량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BTS | MIC Drop / DNA / Crystal Snow 방탄소년단 8번째 싱글 커버.

오는 12월6일 발매되는 '마이크 드롭/DNA/크리스탈 스노우'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버브 유얼프 송' 하에 실린 'DNA', '마이크 드롭'의 일본어 버전, 새롭게 선보이는 윈터송 '크리스탈 스노우' 등 총 3곡으로 구성한다. 한편, 지난 19일(현지시간) K팝 그룹 최초로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방탄소년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뉴스

## 현빈 '꾼'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



배우 현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 '꾼' (감독 장창원)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박스 정상에 올랐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꾼'은 전날 1195개관에서 8295회 상영, 21만3185명을 끌어모아 '저스티스 리그'(4만1400명)를 한 계단 주저앉히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매출액은 15억64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82.2%였다. '꾼'은 대한민국을 뒤흐나놓은 희대의 사기꾼을 잡으려는 검사가 그를

잡기 위해 또 다른 사기꾼과 손을 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현빈이 사기꾼 잡기에 나선 사기꾼 '지성'을, 그와 손잡은 검사 박희수를 유지태가 연기했다. 이밖에 배성우·박성웅·나나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이 작품이 데뷔작인 신예 장창원 감독이 맡았다.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